

십자가의 보혈 8

제단

출 29: 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초기 이스라엘에서 제단은 흔히 자발적인 예배와 연관되어 있었다. 홍수가 줄어들자 노아는 동물 제사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의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를 진정시켰다(창 8:20~21).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를 표시하고(창 12:7; 22:9~13; 35:1, 7) 그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곧 예배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창 12:8; 13:4; 26:25). 이 관행은 사사시대까지 계속되었다(기드온, 삿 6:24). 야곱과 모세는 지명 의식의 일부로 제단을 쌓았고, 이로써 매우 중요한 장소를 성별했다(창 33:20; 35:7; 출 17:15~16). 영구 제단을 갖춘 중앙 집중식 성소가 없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제단 건축이 적절한 것 같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제단 건축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출애굽기 20:24~26; 신명기 27:5~7). 고대 근동의 다른 곳에서는 제단이 신의 동상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신의 동상이 금지되었다(출 20:23). 동물 제물을 위한 제단은 흙(출애굽기 20:24)이나 다듬지 않은 돌(25절)로 만들 수 있었고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층계를 포함할 수 없었다(26절).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만든 것과 같은 형태의 이 단순한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과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출 20:24).

신성한 기둥(*maṣṣēbâ*)과 함께 제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출애굽기 24:4~8; 수하 8:30~35) 또는 이스라엘 부족들 사이에서(여호수아 22:26~29) 언약을 맺는 장소였다. 에발 산에서 여호수아는 12지파와 여호와를 결속시키는 언약 의식의 일환으로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을 세웠다(수 8:30~31). 사사 시대와 성전 이전의 군주 시대에 제단은 통치할 장소를 제공했고(사무엘, 삼상 7:17),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했다(사울, 삼상 14:31~35).

게다가 제단은 두려워하거나 거짓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성소를 제공하는 피난처였다(왕상 1:50~53). 그러나 정당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은 제단에 매달려 구원받을 수 없었고(출 21:14; 왕상 2:28~34), 그것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할 수도 없었다(왕상 8:31~32).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동하는 장막 제단에 대한 설명은 복잡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그 건물의 구성(출애굽기 27:1-8; 37:25-38:7) 및 사용(출애굽기 29:10-26, 36-42; 레위기 1-7)이 상세한 규제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제사장의 규례를 올바르게 준수함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출애굽기 29:37, 42~46). 여기에서도 겸손에 관한 규정이 널리 퍼져 있었다(출 28:42~43). 제사장의 제단은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 제사(레 14:20, 민 5:25)와 피의 제사(출 24:6, 29:12, 레 1:11, 4:1)에도 사용되었다. 18, 34; 5:9).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든 성막과 솔로몬에 의하여 만든 웅장한 성전에서 제단이 만들어졌다. 그 성막과 성전에서 많은 기구들 가운데 제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물론 성막과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금으로 만든 속죄소, 곧 지성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므로 속죄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숨겨진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졌다. 일 년에 단 한차례만 이스라엘의 믿음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고정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제단의 경우는 날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일을 보았다. 말하자면 제단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았다. 그러므로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이 그 백성에게 거하실 성막을 말씀 하시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제단을 통한 예배가 성전 예배의 시작이요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제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제단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죽이는 장소를 뜻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 자신은 물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며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했고,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거룩하게 세우신 것이다.

제단이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단은 거기에 놓여지는 제물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속해 줄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 가지고 오며, 또한 화목에 이어서 감사의 제물도

가져온다. 이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하고자 하는 바람의 표시이다. 제단은 희생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이다.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참 제단의 그림자이다. 신약에서의 참 제단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3:10에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라고 말한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활동 가운데도 제단이 있다.

계시록8:3-5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신약의 제단 역시 구약의 제단과 마찬가지로 죽이는 장소요 희생의 장소이었다. 그러면 신약에서 제단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희생시킨 십자가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처로서의 단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설교단을 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을 거룩하게 생각하여 신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이는 틀린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나는 예배처가 없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므로 예배처를 마련하는 것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 했다. 4층 건물 옥상에 시멘트 부록크로 만든 가건물을 빌려 예배를 시작 했다. 그러나 그곳이 교통이 나쁘고 너무 덥고 너무 추워 사람들이 모이기에 불편하여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다. 그러나 판잣집 2층 4,5평을 빌려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교통이 좋고 아늑한 공간이 되어 예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에 몰려든 예배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술집으로 사용하다 문을 닫은 판자집을 개조하여 좀더 넓은 공간을 마련 했다. 바닥은 울퉁 불퉁한 땅 바닥이고 재래식 화장실이 예배당 안에 있어 여름에는 냄새가 났다, 그래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되어

예배자들이 몰려 들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든 것은 제단으로서의 말씀이 선포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을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처를 마련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곳이 참 제단인 십자가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 질 수 없다. 오늘날에도 예배처를 마련한다면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 단이 있어야 한다.